

석유화학, 수익성 하락 반전 가능성

한투·세종증권, 화학기업 모멘텀 약화에 대비 ... <중립> 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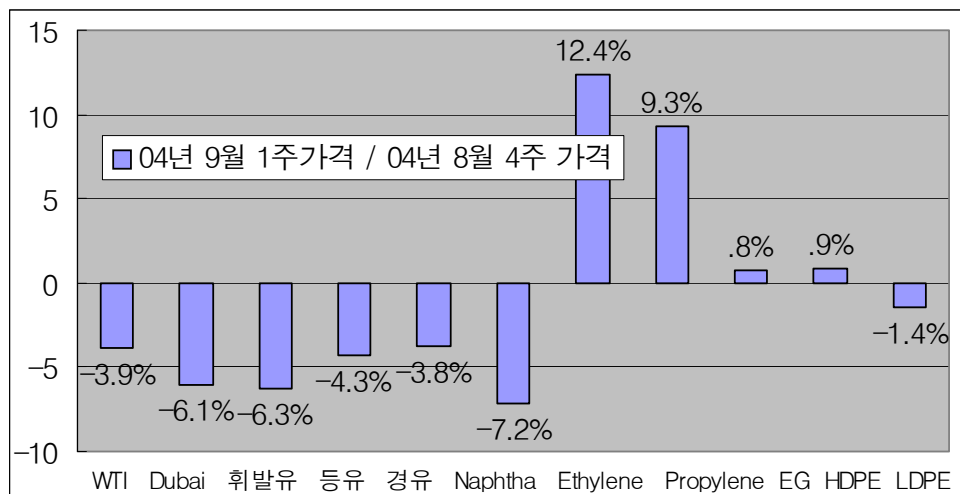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수익의 특혜를 누렸던 석유화학기업들에게 <매수> 의견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던 증권사들이 9월에 접어들어 수익성 하락 및 모멘텀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투자증권의 황규원 애널리스트는 9월6일 산업분석 리포트에서 “화학업종의 수익성 지표 하락반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10-12월 비수기 진입에 따른 화학제품의 수요둔화, 천연가스·원유 가격약세, 최종 수요기업의 가격저항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석유정제 제품가격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만큼 “석유정제기업(SK 및 S-Oil)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됐다”며 앞으로 화학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증권의 유영국 애널리스트는 9월7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나 추가적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의 조정국면 진입 가능성이 높아 모멘텀 약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와 세계적인 석유화학 수급 불안정 지속으로 단기적으로 큰 폭의 가격약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제품 주간가격 동향



자료) 한국투자증권

한편, 석유화학 기업의 수익지표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호남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세종증권은 호남석유화학에 대해 Top Pick을 유지하며 “기초유분 가격상승과 MEG, PP, HDPE 가격 급등으로 사상최대 이익 시현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 5만1000원(상향조정 예정)에 <매수>를 유지했다. 한화석유화학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8700원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하나 기대수익률 약화로 Top Pick에서는 제외했다.

또 높은 배당수익률과 3/4분기 대폭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LG석유화학(목표주가 3만1000원, 매수)에도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제일모직에 목표주가 2만원에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국내 내수진작에 따른 패션매출 및 수익개선이 기대되며 사업다각화(화학·패션·전자재료)로 화학제품 수익성 변화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08>